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3, pp.265-285  
<https://doi.org/10.29212/mh.2019..113.8>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답사기]

## 독립군의 전사적지를 따라 독립전쟁사 연구의 새로운 길을 생각한다.

김경록\*

1. 3·1운동과 독립전쟁사 여정의 출발
2. 한국인의 이주 역사와 연변지역의 독립전쟁
3. 독립전쟁사에서 독립군의 전투
4. 독립군의 산실, 신흥무관학교와 일본군의 군사야욕
5. 여정을 마감하며 독립전쟁사 연구의 미래 모색

### 1. 3·1운동과 독립전쟁사 여정의 출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3월 1일, 그리고 4월 11일은 역사적인 3·1운동이 발발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대한민국

\*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 선임연구원

국민은 당당하게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고 모두의 열망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후 뜨거운 외침과 확고한 의지로 지켜온 100년,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해야 할 10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독립전쟁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독립전쟁사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독립전쟁의 여정을 떠나본다.

올해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인의 독립정신과 활동을 기념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의 국책군사연구기관인 군사편찬연구소도 독립군, 광복군, 그리고 독립지사의 독립전쟁사를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독립군 전사적지를 답사하고 독립전쟁사 연구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답사는 독립운동사의 범주에서 머문 일제강점기 군사사를 독립전쟁의 관점에서 현장 확인하고 향후 독립전쟁사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2019년 3월에 답사팀에 합류하게 된 필자는 기존 계획의 적지 않게 모순된 점을 수정하여 일제강점으로 한국인이 고국을 떠나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한 경위와 현장을 확인하고, 국내와 연변지역에서 3·13운동을 계기로 독립전쟁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던 독립 기지건설 및 전투를 전개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시대배경과 시대상황을 혼돈하여 광복이후 남북분단을 이유로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경시해 왔던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전쟁사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독립전쟁의 길을 확인하는 여정은 최초 계획보다 다소 변경되었다. 이는 최근의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의 관련 연구자들과 부단한 업무협조를 거쳐 2019년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6박 7일간 독립전쟁의 길을 출발했다. 답사의 여정은 무엇보다 190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망국의 서러움을 안고 두만강을 넘어 정착하였던 연변지역

에서 시작하였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연지 차오양완공항(연길 조양천공항)에 도착했다. 1950년대 소형 군용비행장으로 개항한 차오양완공항은 다른 중국의 공항과 달리 공항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그럼에도 한중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공항이라 향후 공항의 규모 및 편의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연길을 조선족자치주 주도(州都)로 하는 연변지역은 주변으로 훈춘, 갑천, 용정 등 광범위한 공간에 일찍부터 건설된 한인촌이 존재하여 독립기지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답사를 통해 간도지역으로 이주한 한국인의 삶, 독립전쟁을 위한 활동, 독립전쟁사에서 이름높은 청산리전투, 봉오동전투를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를 통해 독립전쟁의 무기체계를 수혈받고 일본군의 토벌에 대응하여 독립기지를 옮겨간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번 답사여정은 뒤이어 길림으로 이동하여 일본군의 만주진출을 위한 핵심도시로 건설한 길림의 유적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중국학계의 항일전쟁 연구경향도 파악한다. 다음으로 답사여정은 길을 남쪽으로 돌려 독립군 양성의 요람이었던 신흥무관학교의 흔적을 살펴볼 것이며, 삼둔자에서 고산자로 이어지는 유하촌과 통화지역은 한국 독립전쟁사의 중요 유적지이다. 마지막 여정은 장춘에서 마무리된다. 일본군이 본격적인 대륙침략을 위해 세운 만주국의 흔적을 살펴봄으로써 일본군의 전쟁지도(戰爭指導)를 파악할 수 있다.

## 2. 한국인의 이주 역사와 연변지역의 독립전쟁

이번 독립전쟁 전사적지 답사 여정은 먼저 연변에서 시작되었다.

연변지역은 한국사에서 한민족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이다. 이미 고려말이후 여진족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였던 한민족은 두만강 하류의 연변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이후 후금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쪽 지역은 급격하게 양국간 국경문제가 대두되어 조선과 후금이 강도맹약(江都盟約)을 통해 변강을 봉쇄하도록 맹약하였다. 청나라가 건국되면서 봉금(封禁)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쪽 지역은 국가의 발생지로서 국경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인들은 해마다 심한 자연재해와 기근을 경험하고 국경민들이 봉금을 무릅쓰고 두만강 북쪽에 이주하기 시작했다. 청나라 정부는 이주민의 증가로 국경문제가 대두하자 국경경계선을 조사하기도 했다. 청나라는 초기에는 조선에서 이주하는 한국인에 대해 구축정책, 묵허정책, 모집정책, 입적정책 등으로 정책을 달리하며 대응하였다.

청나라로 이주한 한국인의 삶에 대한 향후 연구는 독립군에 의한 독립전쟁사 연구에 가장 기초적인 조사라 할 것이며, 현재까지 연변 대학을 중심으로 조선족의 역사로 정리되어 있다. 이에 보다 세밀한 이주의 역사가 연구되어야 독립전쟁사 연구에 바탕이 될 것이다. 특히, 인문지리적 연구는 향후 추진할 독립전쟁사 연구에 필요한 선행 연구이다.

연변지역에 이주한 대한제국 시기의 한국인들은 정착을 위한 한전(閑田)개간 및 경작에 집중했다. 이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토대였으며, 다양한 한인촌이 형성되는 근간이었다. 한전개간과 경작을 통해 일정한 생활터전을 마련한 뒤에는 수전을 개간하고 다양한 생산활동에 참가했다. 연변지역에 이주한 한국인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간과 경작보다 중국인의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비록 합법적이지는 않았지만, 1903년 8월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찰사로 파견하여 간도지역의 조선개척민을 관할하였는데 이는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분쟁을 야기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중한국계선후장정”이 1904년 6월 15일에 체결되었다. 이 장정은 양국 사이에 두만강을 국계로 하고 각각 자기의 국경을 지키며 군대가 범월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를 통해 대한제국은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이 거주하던 두만강 이북의 간도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양국 지방관리에 의한 일시적인 장정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은 청일전쟁이후 군국주의 국가로 급속하게 전환되어 조선에 대해 군사적 강점을 시행함과 동시에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러일전쟁이후 1905년 11월에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고 중국 동북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였다. 1906년 11월에 대련에 남만주철도주식회사(만철)을 설립하여 남만철도 경영을 핑계로 세력을 확대했다. 동시에 동북면에 위치한 연변지역은 광산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길림성의 연길, 왕청, 화룡, 훈춘 등 4개 현을 침탈하기 위해 간도문제를 일으켰다. 일본은 1909년 11월 2일에 용정에 간도주재 일본총영사관을 설립한 뒤 훈춘지역의 무역을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청나라와 협상하여 1910년 4월 훈춘에 간도총영사관출장소를 설치하고, 12월에 간도총영사관분관으로 승격시켰다. 이로써 한국인이 많이 이주하여 삶을 영위하던 간도지역이 일본의 관할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이 연변지역을 침탈하려고 하였던 이유는 첫째, 이곳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국 세력의 완충지대로서 전략적 지위가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당시 길림변무공서(吉林邊務公署) 독판(督辦)이었던 우루젠(吳祿貞)이 적은 『연길변무보고(延吉邊務報告)』에 잘 나타나 있다.

“길림의 동남부에 위치해있는 연길청은 조선, 러시아와 이어져있고 중국인과 이민족이 어울려 살며 남으로는 두만강을 마감으로 하

고 동으로는 장백산어구를 매듭짓는다. 싸우기도 좋고 지키기도 좋아 길림 동남부의 천연적인 자물쇠이다. ... 연길청이 없으면 훈춘이 고립무원하게 되고 만난이 오래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두만강어구의 요새가 위험해지게 된다.”

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변지역의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은 군사적으로 한국인이 다수 이주하여 한인촌을 형성하고 독립기지를 건설하였다는 점에도 일본군의 입장에서 반드시 점령해야 할 지역이었다. 일본은 이에 러시아세력에 대한 견제 및 방어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더욱 점령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변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은 갑천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갑천은 현재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국경이 겹쳐진 공간으로 경제개발과 교역발전이 왕성한 곳이다. 현재 연길시에서 갑천까지 가는 길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갑천을 국가1급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용호각과 같은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 지역은 국가안보의 현장이자, 동북삼성의 중요한 중국의 개혁개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었기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없음에도 국가1급관광지로 지정한 것이다.



갑천의 용호각

그렇다면 이곳은 다만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중요시되었던 것인가? 연변지역은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지역이 광활하고 물산이 풍부하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국가의 교역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이자 물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한국인이 이전에 이주하여 생활터전을 마련했으며, 동일하게 일

본의 침략 목적지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 군사, 경제적 요충지였던 연변지역에서 한국인의 한인촌 건설 및 독립기지 구축은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등 독립전쟁의 중요 전투가 발생하게 된 이유였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한 일본은 간도의 한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간도문제에 개입하였다. 당시 1907년 일본의 통계에 의하면 연변지역에 한인이 14,650호, 72,470명이 거주하였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1906년에 통감으로써 중국영토인 연변지역에 대한 침략을 획책했다. 그 명분은 한인에 대한 보호였으며, 1907년 러일밀약을 통해 외교적인 수단을 마련한 뒤 같은 해 8월 23일에 용정에 통감부 간도과출소를 설치되었다.

통감부 간도과출소는 항약을 기초로 한 중국지방행정제도를 무시하고 연변지구를 북도소, 회령간도, 종성간도, 무산간도 등 4개로 구분하고, 도합 41개 사, 290개 촌으로 획분했다. 뒤이어 일본은 중국정부와 한국인의 재판권을 쟁탈했다. 또한 간도과출소에 조사과를 설치하여 지질광산, 농림, 공업, 토목, 측량 등 자원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약탈을 수반했다. 이러한 일본의 침탈에 대해 청나라는 길림변무공서를 설치하여 대항하였으며, 한국인은 청나라와 함께 일본에 대해 싸웠다.

연변지역에 이주한 한국인은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 중화민국이 세워지자 이동춘, 김약연, 김립 등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치를 지향했다. 한국인들은 간민회, 농무계 등을 설립하여 자치운동을 전개했는데, 망국의 상황에서 중국의 영토에서 일본의 침입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한국인들은 우선 1913년 2월에 간민교육회의를 설치하고 4월에 간민회 설립대회를 개최했다. 1910년 기준으로 연변지역에는 약 15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당시 전체 연변인구의 77%였다. 간민회는 중국의 지방행정기관 및 경찰과 함께 호구조사

를 실시했다. 뒤이어 전체 한국인의 80%가 농민이었기 때문에 토지 매매를 중국인과 동일한 지위로 행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민족정신을 고무하고 국민정신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인 창가교육을 중요시했으며 『청년』과 같은 월보를 발간했다.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연변학생연합운동대회 등을 개최했다.

연변지역 한국인들은 간민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인 농무계를 조직하고, 종교활동의 조직으로 공교회(孔敎會)를 설립했다. 1914년 위안스카이(袁世凱)가 각 성에 지방자치기구를 철폐하도록 하자 기존의 간민회, 농무계, 공교회를 대체할 장업회(獎業會)를 설립했다. 이들 조직이외에 연길현에 의란구친목회, 사우계(士友契), 대한국민회 간도직속지회, 철혈광복단, 화룡현에 민권당, 훈춘현에 기독교우회, 둔전영, 훈춘상무회, 해도회, 창의소, 왕청현에 중광단, 급당, 농상회 등 소규모 독립단체들이 존재했다. 이처럼 연변지역의 한국인들은 19세기 말에 이미 이주하기 시작하여 한전을 개간하고 한인촌을 형성함과 동시에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청나라의 간섭, 일본의 진출, 중국정부의 탄압을 견뎌가며 망국의 서러움을 극복하고 독립전쟁을 위한 기반을 다져갔다. 이는 현재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연변지역의 독립전쟁 기억은 많은 부분이 개발로 이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다. 한국인의 이주, 청나라의 경계, 일본의 진출야욕 등이 겹쳐진 공간으로 현재 훈춘의 동쪽에 위치한 갑천이 있다. 갑천은 두만강의 하류로 북한지역이 눈앞에 선하게 드러난다.

연변지역으로 이주한 한국인은 이곳 갑천을 통해 러시아에서 독립전쟁에 필요한 각종 무기를 구입하고 일본군, 중국의 눈을 피해 독립군의 활동지역까지 운송했다. 독립전쟁에 있어 현재까지 많은



갑천에서 바라본 국경지역

부분이 연구되어 독립운동사의 대략적인 모습이 밝혀졌지만, 독립전쟁의 관점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연구되어야 한다. 무기체계에서 가장 중요하였던 개인화기로 총류의 경우에 총을 몇

자루 보유했는가 보다는 총의 상태, 총알의 유효기간 등이 중요하다. 실제 독립군이 구입하고 운송하였던 총기의 경우, 장착하는 총알이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발사오류가 발생한다.

한인촌의 독립기지에서 어렵게 모은 군자금으로 일본의 감시를 피해 총기를 구입하고 풍부하지 못한 무기체계로 변변한 훈련도 없이 독립전쟁을 수행했다. 기존의 독립군이 수행한 전투중심의 연구에서 확대하여 독립군의 독립전쟁 수행의 기반이 되었던 한인촌의 독립기지 건설과정, 무기체계 구입 및 훈련, 무기체계의 구체적인 성능과 효과, 군자금의 조달과정 등이 포괄적으로 연구되어야 독립전쟁의 실상이 밝혀질 것이다.

### 3. 독립전쟁사에서 독립군의 전투

망국의 시점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만주와 간도지역으로 이주한 한국민은 3·1운동을 계기로 독립군기지를 만들고 독립전쟁을 전개했다.

## &lt;1910~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무장단체 현황&gt;

조직명	지도자	위치	조직시점
맹호단	김상호	용정촌	1919
대한독립단	박장호, 안병찬	삼원포	1919.3
대한독립군비단	이희삼		
대한독립군	홍범도	왕청현 봉오동	
도독부	최진동		
간도국민회	구춘선	연길, 화룡, 왕청	
광복군총영	오동진	관전현	1920
광복단	김성극	안도현	1920
족회	이탁	삼원포	1919.5
한서로군정서	여준, 이탁	안도현	
신흥무관학교	이청천	통화 합니하	
대한청년단	안병찬	안동현	1919.4
광정단	김호	무송현	
야단	신포	북만주	1919.3
혈성단	김국초	흑룡강성	
노인단	김치보	블라디보스톡	1919.3
대한정의군정사	이규	안도현	1919.3
대한군정서	서일, 김좌진	왕청현	1919.3
의민단	방우룡		1919
신민단	김규면	춘화향	1919
대한학생광복단	김계역		
창의단	이범윤		
독립단		블라디보스톡	1919.11
신국민단	김병합	화룡현 대답자	1919.5
충렬대	김학수		
자위단	최경호	국자가	
한족독립기성회		블라디보스톡	
청년단		블라디보스톡	
대한신민단		훈춘	
광복단	이호원	삼원포	

\* 전기 : 김철수, 「독립군기와 항일유격근거지에 대한 고찰」, 김춘선 주필, 『항일전쟁과 중국조선족』, 연변인민출판사, 2015. 302쪽.

국내에서의 3·1운동은 연변지역에서 3·13운동으로 이어져 연변 지역 한국인들은 3·13운동을 계기로 독립전쟁의 길에 들어섰다. 연변을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의 한국인들은 대한 독립을 쟁취하려면 외교독립론이나 중국정부의 힘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에 의거해야 하며, 평화적인 시위행진이나 청원의 방식으로써가 아니라 무장한 일본군을 독립전쟁으로 대응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 결과로 연변지역에 간도국민회, 대한군정서, 대한독립군, 군무도독부, 광복단, 신민단, 의민단, 훈춘한민회 등 조직이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였던 조직을 살펴보자. 간도국민회는 1919년 3월 25일에 연길현 춘양향(春陽鄉) 하마탕에 설치되었으며 연길, 화룡, 왕청 등 3개 현으로 세력이 확대되었다. 간도국민회의 설치에 용정지역 만세시위운동 및 『대한독립신문』을 발간했던 독립지사 구춘선(具春先)이 있다.

간도국민회는 여러 지역에 지방조직을 설치하고, 대동단, 광복단, 철혈광복단, 대한청년회 등 외곽조직을 포함했다. 간도국민회의 군무위원회에서 조직한 군사조직이 국민회군이다. 간도국민회의는 지방조직에서 모집한 청장년들로 국민회군을 조직하였는데 1920년 6월에 대원 450명, 보총 400자루, 권총 150자루 등을 보유했다. 국민회군은 군사인재 양성을 위해 흥범도부대와 연합하여 7월에 무관학교를 설립했다.

대한군정서는 1911년 3월에 대종교 신도들이 조직하였으며 1919년 4월에 다른 종교 신도들과 연합하여 설립한 대한정의단에서 출발했다. 대한정의단은 조직을 확대하여 8월에 5개 분단, 70여개 지단으로 확대되었다. 대한정의단은 이후 8월에 대한군정회로, 10월에 대한군정부로 개편되었다가 12월에는 대한군정서로 변화되었다. 대한군정서의 총재는 서일(徐一), 부총재는 현천묵(玄天默), 사령관은 김좌진(金佐鎭)이었다.

특이하게도 대한군정서는 지방 경찰과 업무를 나누어 관리하는 경신국, 경신분국을 설치 운영하였다. 대한군정서는 왕청현 덕원리에서 산림이 우거진 서대파 십리평으로 옮겨 천연요새의 군사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이곳에서 대한군정서는 병영과 연병장을 마련하여 군사인재를 양성하였다. 1920년 7월에 대한군정서는 4개 대대의 1,600명의 병력을 보유했다.

대한독립군은 1919년 3·1운동 직후에 의병장 홍범도가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서 조직한 독립군이다. 사령관에 홍범도, 부사령관에 주건(朱建), 참모장에 박경철(朴景哲)이었던 대한독립군은 8월에 백두산 근처로 옮겼다. 당시 병력은 3개 중대의 300명이었다. 대한독립군은 8월에 압록강을 건너 함경도 혜산진의 일본군수비대를 공격했으며 9월에는 갑산군 동인면의 금정주채소 등 일본기관을 공격했다. 대한독립군은 이처럼 19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한반도진입작전을 56차례 실시하는 등 활발한 독립전쟁을 전개했지만, 다른 독립군조직과 달리 지역기반이 없었다.

이에 간도국민회는 대한독립군에 총기 등 무기를 공급했다. 이들 독립군 조직은 한인촌의 독립기지에 기반하여 활동하였으며, 1920년에 일본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연변지역에서 모금된 군자금은 합계 50여 만원이었다. 이들 군자금을 통해 독립군은 연해주에서 주로 무기를 구입하였는데, 이동휘, 홍범도 등이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구입된 무기는 주로 보총, 권총, 기관총, 수류탄, 탄약 등이었다.

이들 독립군 조직은 일본군의 간도진출에 대해 강력하게 독립전쟁을 전개하여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의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봉오동 및 청산리는 한국인의 접근이 어렵다. 이번 여정에서 멀리 해당 지역을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전에 전투지역을 둘러봤던 것과 달리 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삼둔자, 후안산, 고려툰, 봉오동 일대에서 이루어진 전투로 간도국민회 제2북부지방회의 통고문에 의하면 일본군 전사자 49명, 독립군 전사자 2명이었다. 봉오동전투는 연변지역 독립군이 지역 한국인의 지원을 받아 일본 정규군을 대상으로 거둔 승리로 의미가 있다.

봉오동 전투이후 독립군은 연길현 의란구에서 간도국민회, 대한도독부, 대한의군부, 대한의민단, 대한신민단, 라자구의사부, 훈춘한민회, 대한광복단, 대한군정서 등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결과 독립군의 연합을 결의하고, 홍범도를 사령관으로 하는 동도독군부, 김좌진을 사령관으로 하는 동도군정서, 서상렬을 사령관으로 하는 동도과건부 등으로 단일화하였다. 독립군의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일본군은 중국 군벌 장쥘린(張作霖)을 협박하여 중국군으로 하여금 독립군을 토벌하도록 했다.

일본은 “간도지방불령선인초토계획”을 세우고 독립군에 대한 토벌을 계획했다. 1920년 9월 12일에 일본군은 1차 훈춘사건을 조작하여 독립군 토벌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다. 뒤이어 9월 30일에 2차 훈춘사건이 발생하자 일본군은 10월 6일,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가 간도출병을 요구했다. 일본정부의 즉각 승인에 따라 제19사단, 제20사단의 78연대, 우라시오(浦塩) 과건군 제14, 11, 13사단, 관동군 제19연대, 기병 제20연대 등 2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연변지역을 동서남북으로 포위하고 공격했다. 1920년 10월에 이루어진 일본군의 야만적인 토벌작전으로 많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피살되는 경신토벌과 경신참변이 발생했다.

일본군의 토벌작전에 대응하여 독립군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백운평전투, 천수동전투, 완류구전투, 어량촌전투, 고동하곡전투 등 10여 차례의 전투를 벌여 일본군을 격퇴시켜 일본군이 철수하도록 만든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했다. 청산리 전투가 벌어진 이들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주변의 한인촌에서 다양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투였다.

이처럼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었던 원인은 군자금을 모아 전달하고, 독립군의 활동을 군사,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한인촌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변지역의 경우는 다양한 한인촌이 건설되어 한국인의 삶에 터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기반을 다져갔다.

1910년대부터 중국 동북지역 독립기지 건설은 북간도, 서간도, 북만의 밀산현 등 주로 3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변지역에 해당하는 북간도는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집단이주를 통한 한인촌 건설이 필요없이 직접 민족교육을 통해 군사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다. 1906년 8월에 이상설, 이동녕 등이 용정촌에 설립한 서전서숙을 시작으로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창동학교, 명동



용정촌의 명동학교

학교, 길동서숙, 정동학교 등 근대교육과 독립지사 양성을 위한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이번 여정에서 명동학교, 정동학교 등을 둘러보았으며, 한국인들이 중국과 일

본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간민회를 중심으로 연길, 화룡, 왕청 등지에서 한인촌을 건설하고 자치를 지향하였던 흔적을 살펴봤다. 현재 용정의 명동학교, 용정의 원천지 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다. 용정의 명동학교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어 있지만, 다른 학교와 한인촌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용정지명 기원지 우물

하다못해 정동학교의 위치에 설치된 정동학교역사관은 중국정부에서 한국인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실정이다.

#### 4. 독립군의 산실, 신흥무관학교와 일본군의 군사야욕

연길시에서 훈춘, 갑천을 둘러본 여정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흔적이 가득한 지역을 멀리서 바라보는 아쉬움과 함께 용정지역을 살펴봤다. 이후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길림에 이르러 일본군의 만주 침략 및 대륙진출을 위한 길림지역 침입과정을 둘러봤다. 현재는 길림 중심지에 변화한 건물로 대체되었지만, 일본은 영사관, 경찰서 등을 길림시 중심가에 두어 길림을 만주 침략 중심지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림시의 여정을 마감하고 다시 길을 남쪽으로 하여 신흥무관학교의 흔적을 찾아 유하로 향했다.



일본경찰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길림시 중심가

연변지역과 달리 서간도로 불리는 통화, 유하 등지는 일찍이 의병부대들이 압록강을 넘어 활약하였던 공간으로 독립전쟁사에서 역사적 유래가 깊다. 자연적인 이주를 통해 한인촌이 형성된 북간도와 달리 서간도의 한국인들은 조직적인 이주를 통해 한인촌을 건설하고 독립전쟁의 근간이 되는 군사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서간도의 한인촌 건설 및 독립기지 마련은 초기부터 신민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신민회는 일본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를 독립기지 건설의 최적지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신민회는 통화현 부근에 토지를 구입하여 독립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했다. 뒤이어 한국인으로 이주 가능한 이들을 모집하여 계획적으로 집단이주를 추진했으며, 각 지역의 대표들은 지역 한인촌에서 군자금을 모금했다. 이에 따라 1911년 2월에 우리가 잘 아는 이회영 6형제와 식솔 40여 명이 추가가로 이주했으며 같은 해에 4월에 자치단체로서 경학사를 조직했다. 경학사는 산하에 내무, 농무, 재무, 교무 등 조직을 두어 한국인의 이주와 정착, 경제생활의 향상, 독립정신의 고취, 군사교육의 실시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 열악하여 경학사의 재정은 매우 어려워졌으며, 1913년에는 공리회를, 1916년에는 부민단을 조직하여 경학사의 취지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도 통화현 합니하에 신흥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14년부터 통화현 제8구 팔리초 소북차에 백서농장(白西農場)이라 불리는 대규모 병영을 건축하여 신흥학우단 졸업생 385명을 수용하여 독립군으로 양성했다. 경학사, 공리회, 부민단, 신흥강습소를 발전시킨 신흥학교와 신흥학우단은 삼원포와 합니하를 중심으로 서간도 한국인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독립군을 양성함으로써 한국 독립전쟁사의 요람으로 자리잡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남만주의 한국인들은 적극적인 반일 활동을 전개했다. 4월 초에 유하현, 환인현, 집안현, 임강현, 해룡현 등의 부민단, 자신계, 교육회 등 단체들이 연합하여 한족회를 설립했다. 한족회는 이탁(李洫)을 총장으로 자치조직을 정비하고 일본군과의 독립전쟁을 위해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의 군사조직을 설립

했다. 서로군정서의 독판 이상룡, 부독판 여준(呂准), 정무청장 이탁, 참모장 김동삼, 사령관 지청천 등은 신흥학교를 신흥무관학교로 개편하여 군사인재양성에 주력했다.

서로군정서는 신흥무관학교의 본교를 합니하에서 유하현 고산자(孤山子)로 옮기고 2년제 고급군사반을 설치함과 동시에 기존의 본교가 있었던 합니하와 통화현 쾌대모자에 분교를 두어 초등군사반을 설치했다.

서간도지역에서 조직된 독립군은 서로군정서 이외에도 대한독립단, 대한독립군비단 등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서로군정서는 3·1운동이후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산하 군사조직으로 편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고산지지역의 고산자교제되어 군사기구인 군정부를 군정서로 개칭하였다. 이는 독립전쟁의 정부역할을 수행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실제 독립전쟁을 실시하였던 독립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독립군이 단순한 민병대 수준이 아니라 정식 임시정부의 군대로서 일본군과 전쟁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로군정서와 신흥무관학교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달리 현재 서간도 지역은 독립전쟁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삼원포에는 중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 군사지역으로 출입이 어렵고, 경학사, 백서농장, 신흥무관학교 등지의 흔적은 중국사회의 변화과정에 묻혀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군사시설이었던 신흥무관학교 등은 일본군에 의한 정보유출을 염려하여 정확한 위치를 남기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인의 생활공간, 경작공간으로 이용됨으로써 역사적 흔적이 상실

된 점은 매우 아쉽다. 이러한 아쉬움은 수 차례 유하현을 방문하였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며, 향후 중국 학계와 공동 군사사연구를 통해 회복시켜야 할 과제이다.

## 5. 여정을 마감하며 독립전쟁사 연구의 미래 모색

이번 독립군 전사적지 여정의 마감은 장춘에서 이루어졌다. 메이지유신 이후 군사개혁 및 군비확장을 통해 침략 전쟁하였던 일본은 한국, 만주를 점령한 뒤 장춘에 만주국이란 괴뢰국가를 수립했다. 만주국은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허울 좋은 조직이었으며, 중국의 분열을 의도한 국가였다.

그 흔적은 만주국의 황궁인 위만황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황실문양과 중국의 전통 문양을 괴이하게 섞어 만든 만주황실의 문양은 위만황궁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2011년 중국 명사학회의 학술회의가 종료되고 중국학자들과 이곳을 둘러보며 위만황궁의 문양에 대해 설명하였더니 중국학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역사연구소에서 저명한 역사학자였던 이들도 위만황궁의 문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만주국의 여러 관청과 달리 황궁은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지어졌다. 물론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溥儀)를 황제로 내세우면서 형식적인 황제로서 권위를 부여하기에 위만황궁 정도면 충분하였을런지 모르겠다. 그 가운데 황궁을 건축하며 동원된 인부들이 작은 부분이었지만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자 복도를 복층으로 하거나 작은 계단도 의미 부여하였던 점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같은 중국인으로 황제에 대한 애증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만주국을 내세운 일본은 1937년 드디어 중일전쟁을 일으켜 관내 침략을 시작했다. 이어지는 상해전투, 남경학살 등은 일본군의 잔인함을 잘 보여준다. 또한,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인들이 강제로 징병되어 현재 광복군으로 생존해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일본군의 징병에 끌려가서 중국 관내의 전투에 투입되었다가 탈출하여 주로 광복군 2지대에 들어간 분들이 많다. 일본군의 청일전쟁이후 한반도에 대한 군사강점, 러일전쟁이후 보호국화, 강제병합,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간도출병, 독립군의 독립전쟁, 만주침략, 중일전쟁, 광복군의 창설과 독립전쟁 등이 위만황궁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는 독립전쟁의 과정이었다.

독립군의 전사적지를 여정하며 향후 독립전쟁사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첫째, 무엇보다 독립전쟁의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학계에서 독립운동을 정리한다면 군사사 측면에서 독립전쟁의 관점으로 독립전쟁사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 저항하여 부분적인 무장투쟁이 아니라 3·1민족운동의 독립열망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로서 독립군이 일본의 군대와 독립을 위해 전쟁을 수행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연변 지역의 독립군과 봉오동·청산리전투, 서간도지역의 서로군정서와 신흥무관학교는 대한독립을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있는 독립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쟁취했던 역사적 성과임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간적으로 현재까지 독립관련 연구에서 동북지역의 독립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반면에 중국 관내에서의 독립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192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많은 독립세력이 관내로 이동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도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관내에서의 독립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독립전쟁사의 연구방향도 이를 중시해야 한다.

셋째, 중국 동북지역의 독립연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1920년대 이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동북지역의 독립군 세력의 많은 숫자가 관내로 이동하였지만 한인촌을 근거지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군, 소련군에 편입되어 일본에 대한 전쟁을 계속했다. 1930년대 이후 독립전쟁사의 영역을 현재처럼 중국 본토의 관내에 집중하는 경향에서 항일연군으로 확대하여 동북지역 독립전쟁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지역 독립전쟁사 연구는 6·25전쟁사 연구와도 연관되며, 전쟁사 연구의 기본 토대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독립전쟁의 전투사 중심에서 연구분야를 확대하여 무기체계, 독립군기지, 한인촌의 군사지원 및 경제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독립전쟁사 연구에 대한 전문연구 인력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독립전쟁의 시기에 무기체계, 독립군기지, 한인촌의 군사지원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인원을 중장기적으로 배출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독립전쟁사를 한국 군사사의 중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전문연구자를 선발하는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독립전쟁사 연구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의 학계와 면밀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연변대 연변역사학회

북화대 동아시아문화연구센터

들면, 중국학계에서 항일전쟁이라 하여 중일전쟁에 대한 연구는 중요 연구분야로 설정되어

방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이를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 동북지역의 독립군과 한국인 등과 연계하여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가능하다.

대외적으로 관련국 전문학계와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의 관련연구 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하다.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이들 전문연구 및 전문연구자에게 연구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전쟁의 생존자에 대한 구술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파병장병을 비롯한 많은 분야의 군사사적 의미있는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왔으며, 방대하게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전쟁사에 관련한 구술자료 수집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등 현재 국내의 많은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연구자들이 수집한 구술자료가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독립운동사가 아닌 독립전쟁사로서 생존자들의 군사사적 관점에서 구술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